



〈평화공원~화물차휴게소 1.8km〉

신선대지하차도 3월말 개통 용당 일대 상습정체 풀린다



광안대교~부산항대교 노스톱 통행 가능해져 6월 상부도로 정비되면 교통흐름 획기적 개선

동명오거리에서 부산항대교를 연결하는 신선대지하차도가 이달 말 개통된다. 이에 따라 공사기간 내내 만성 교통체증에 시달린 용당동 일대의 상습정체가 크게 해소되고 광안대교~부산항대교를 노스톱으로 달릴 수 있게 된다.

부산항대교 관리운영사인 북항아이브리지(주)는 부산항대교~동명오거리 접속도로 공사를 완료, 이달 말 신선대지하차도 구간을 개통한다고 알려졌다. 부산항대교~동명오거리 접속도로 공사는 부산항대교 종점인 감만동부터 대연동 대연고가교까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연장 3,040m로고가 800m, 지하차도 1,800m, 평면도로 440m로 건설됐다. 이번에 개통되는 지하차도구간은 평화공원~감만동 화물차휴게소를 잇는 총 1.8km(왕복 4차로)다.

2011년 4월 착공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마무리가 되는 이 구간은 개통을 앞두고 현재 지하차도 진출입로 막바지 정비 작업이 한창이다. 지하 구간이 끝나는 화물차휴게소 인근부터 이미 공사가 완료된 고가도로를 통해 부산항대교로 바로 이어진다.

부산항대교 이용 차량이 지하차도를 통과하면 상부도로의 교통 흐름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항아이브리지(주)는 6월까지 지하차도 공사를 위해 노면에 설치해 놓은 철제 복공판과 공사장바 등을 모두 철거하고 상부 도로를 재정비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용당 일대의 교통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신선대지하차도가 개통됨에 따라 광안대교~부산항대교~남항대교를 신호등 없이 달릴 수 있게 된다. 광안대교부터 송도까지 15분이면 관통 가능해져 명실상부 부산의 해안순환도로 망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보행자 통행을 위해 평화공원 앞에 육교식 보행교가 설치됐다.

■정식명칭 신선대지하차도 제정

부산시는 감만동 신선대부두(舊)연동 평화공원을 연결하는 1800m 지하차도의 정식 명칭을 '신선대지하차도'로 지난 연말 제정, 공고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시점부가 신선대부두 교차로인데 '지하차도'는 교차로 명칭과 동일 명칭으로 한다'는 시 도로시설물 명칭제정 운영규정에 따른 결정입니다.

신선대지하차도 개통 기념 4월 한달 매일 경품이벤트

북항아이브리지(주)는 신선대지하차도 개통을 기념하고 공사 기간 불편함을 참아준 남구 주민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4월 한달간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매일 경품 이벤트를 펼친다.

부산항대교 톨게이트에서 매일 통행 차량 4대를 선정해 호텔숙박권, 블랙박스, 전자카드, 뷔페식사권, 탁상시계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631-1941



봄날의 유엔기념공원

목련산책로 아쉽니까

'황령산 정기 받은 남구의 구민 목련꽃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우리 남구 구가(區歌)의 노랫말입니다. 목련은 남구를 상징하는 꽃으로 아름다움과 풍요를 의미해 구화로 지정되었습니다.

넉넉하고 하얀 속살이 고혹적인 목련(木蓮)은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나무에 피는 연꽃'입니다. 매화와 더불어 봄소식을 맨 먼저 전해주는 계절의 전령이죠. 사진은 유엔기념공원의 상징구역 대한민국 장병 묘역 부근에 핀 목련나무들입니다. 백목련과 자목련 십여 그루가 산책로 양옆으로 사열하듯 서 있습니다. 꽃 같은 나이에 이력만리 타국에서 영면한 젊은 영령들과 어울려 묘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귀하의 한 표가 세상 바꿀 '신의 한 수' 될지 모릅니다

4월 8~9일 사전투표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는 4월 13일(수)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남구는 동주민센터, 초·중·고교 강당 등 모두 72곳의 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선거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전투표제가 4월 8~9(금·토)일 이틀간 남구 17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

선거일인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 절차의 모든 과정은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 투표사무원과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동참한다.

투표 절차는 우선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 →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정당에 한 표, 후보자에 한 표) →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출구로 나오면 된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 어린이의 경우 기표소 출입은 제외) 안에 출입이 가능하지만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구 인구 상한선 28만명이 넘는 남구는 갑·을 2명의 국회의원을 둔다. 대연동·문현동은 갑선거구, 용호동·용당동·감만동·우암동은 을선거구로 나뉜다.

선거당일 바쁜면 사전투표 하세요

2014년 지방선거 때 전국적으로 도입된 사전투표는 사전투표기간(4월 8~9일 오전 6시~오후 6시)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읍면동에 설치된 아무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하면 된다. 사전투표는 국회의원 지역구 내에 주소를 둔 관내선거인과 그렇지 않은 관외선거인으로 나뉘어 진행되나 유의해야 한다.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외에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실에서 기표를 하고 이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근로자 참정권 보장

참정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된다.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 정책과 후보자 선거공보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할 수 있다. 후보자 선거공보는 4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 후, 4월 2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남은 일정

3. 24. ~25. 후보자등록 신청
3. 27. ~2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3. 30. ~4. 4. 재외투표소 투표
3. 31. ~4. 13. 선거기간
4. 1. 선거인명부 확정
4. 5. ~8. 선상투표
4. 8. ~9.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4. 13. (수) 투표, 개표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장소 2면 게재〉



대연1동 주민센터 새집으로 이사

신축 대연1동주민센터가 완공돼 지난 14일부터 행정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필로티 구조로 1층은 주차장, 2층은 민원실, 3층은 동대본부·사회시설, 4층은 대회의실, 찜질대사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실, 5층은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업무를 본다.(주소 :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24)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설

신축 대연1동사 5층 설치

남구가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봉희)를 운영한다. 센터는 신축 대연1동 주민센터 5층에 위치했다. 이번엔 새로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사업으로 △청소년·부모대상 상담 △상담통계 및 유형분석·관리, 사례집 발간 △청소년상담자지원봉사자 및 지도자 교육·연수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운영 △상담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같은 사업을 펼친다. 또 △지역사회 청소년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자살, 새터민, 다문화 등 위기청소년 지원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 및 가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 같은 청소년통합지

원체계 구축사업도 벌인다. 이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통합 운영돼 복지사가가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센터 조직은 상담팀, 통합지원팀, 학교밖 청소년지원팀 등 센터장을 포함해 3개팀 1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사무대에서 위탁운영한다. 정봉희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성장할 수 있게 상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위기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돕겠다"며 "전문성과 열정으로 청소년들에게 한발짝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용시간 : 평일 09 : 00 ~ 18 : 00 (하루 토요일 이용 가능할 예정)
▶이용대상 : 청소년(9~24세), 학부모
▶전화상담 : 051-1388, 051-621-4831

감만2동의 '창조적 행정'

동주민센터·통장 '밴드' 결성 민원 등 불편사항 실시간 대처



'무단 투기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가 주민들과 SNS(소셜네트워크)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에 대처하고 있어 화제다.

감만2동 주민센터는 주민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관내 통장들이 모여 SNS에 '감만2동 統〇通 밴드'를 결성했다.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생기면 보통은 주민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데 이러한 때를 놓치거나 시간이 적잖게 걸리기 마련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측이 '밴드 결성'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놔다. 밴드 회원은 감만2동 통장들과 동주민센

터 직원 등 22명이다. 통장들이 보도 합물, 도로시설물 파손사항 등 민원 현장을 발견해, 스마트폰으로 찍어 밴드에 올리면 그 즉시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밴드 결성 일주일 안 돼 쓰레기 투기, 폐자전거 철거 등 주민불편사항과 시책홍보 등 10여 건을 해결했다. 정용환 통장진목회장은 "SNS 밴드 활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예 보탬이 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감만2동 김희숙 동장은 "효과가 입 증된 만큼 향후 밴드 회원을 주민자치회, 방위협의회 등 각급단체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07-6841

4월 1일 구민 나눔장터

- 일시 : 4. 1. (금) 오전 10시~오후 4시
- ※ 우천시 행사 취소
- 참가신청 : 3. 28. (월) 9시 부터 (전화, 방문) 신청소 마감
- ※ 행사당일 신분증확인 후 자리 배정
- 부대행사 : 폐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
- 문의 : 청소행정과 607-4451

4.13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2면>

미 해군들 분포도 일일체험 <4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